

최종확인 점검문제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㉠ 모란이 피기까지는,
 나는 아직 ㉡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.
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,
 나는 비로소 봄을 ㉢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.
 오월 어느 날, 그 하루 무덤던 날,
 ㉣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,
 뻗쳐 오르던 내 보람 ㉤ 서운케 무너졌느니,
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,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,
 ㉦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습네다.
 모란이 피기까지는,
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㉧ 찬란한 슬픔의 봄
 을.

21.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우리말의 어순을 바꿔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.
 - ②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유희주의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.
 - ③ 섬세한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 비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 - ④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.
 - ⑤ 잘 다듬어진 시어와 전통적 운율의 사용 등 시문학 파의 시적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.

22. 이 시에 나타난 시인의 생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?

<보기>

지연 : 이 시에는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.
 기수 : 그래,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의 계절인 동시에 모란이 떨어지는 슬픔의 계절인 거지.
 영탁 : 그래서 영원한 천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지니게 된 것 같아. 소멸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상실의 아픔을 주지 않을 테니까.
 준하 : 그래도 시인은 모란이 피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어. 나중에 다가올 슬픔을 알지만 그래도 주어진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.
 영선 : 맞아. 아마도 시인은 탄생의 기쁨과 소멸의 슬픔, 그 둘을 모두 느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?

- ① 지연
- ② 기수
- ③ 영탁
- ④ 준하
- ⑤ 영선

23. 이 시의 '모란'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이다.
- ②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이다.
- ③ 화자와 자연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.
- ④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이다.
- ⑤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 줄 절대적 존재이다.

24. 이 시에서 <보기>와 관계 깊은 시어는?

<보기>

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모란이 피고 난 후 시들게 되면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. 즉, 화자의 기다림은 길고 오래며 숙명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.

- ① 아직
- ② 똑똑
- ③ 무덤덤
- ④ 천지에
- ⑤ 다

25.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.
- ② 모든 일에 수용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.
- ③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.
- ④ 소망과 보람을 이루려는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다.
- 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.

26. 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날을 의미한다.
- ② 화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.
- ③ ‘오월 어느 날’과 의미상 대립되는 표현이다.
- ④ 화자가 모란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시간이다.
- ⑤ 모란이 진 슬픔과 서러움의 정감의 깊이를 드러낸 표현이다.

27. 다음 중 표현과 발상이 ㉡과 유사한 것은?

- ①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 것은 /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 어니,
- 정지용, <유리창>
- ② 푸른 하늘 / 푸른 들 / 날아다니며 // 푸른 노래 / 푸른 울음 / 울어 예으리.
- 한하운, <파랑새>
- ③ 어둠은 새를 낳고, 돌을 / 낳고, 꽃을 낳는다.
- 박남수, <아침 이미지>
- ④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. /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. /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/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.
- 기형도, <안개>
- ⑤ 참 오래오래,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. 때를 지어 읍니다.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.
- 박용래, <월훈>

28. ㉢~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㉢ : 시작 화자의 삶의 보람을 나타낸다.
- ② ㉣ :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.
- ③ ㉤ : ‘이별한, 상실한’의 의미로 모란이 떨어진 것을 나타낸다.
- ④ ㉥ : 떨어진 모란을 보고 상실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.
- ⑤ ㉦ :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핀 모란이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.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㉠모란이 피기까지는
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
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
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
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
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
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
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
 ㉡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
 모란이 피기까지는
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
 - 김영랑, '모란이 피기까지는'

29.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핵심 대상이 가진 가치 상대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이끌 어내고 있다.
- ② 여성적인 화자를 설정하여 작품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.
- ③ 시의 도입부와 끝부분이 약간은 다르지만 내용을 반복 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.
- ④ 모순되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핵심 대상이 화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.
- ⑤ 계절의 변화와 '기다림-서러움-기다림' 구조가 맞물려 순환론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
30. ㉠과 상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오월, 천지 ② 봄, 자취 ③ 봄, 보람
- ④ 꽃잎, 보람 ⑤ 오월, 슬픔

31. ㉡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분명하고 확실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
- ② 감정이 변화하는 흐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
- ③ 이중적 심리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
- ④ 슬픔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
- ⑤ 자신의 소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

32. ㉠~㉣ 중 <보기>의 조건에 따라 이 시를 패러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1. 내용이 일관성이 있을 것
2. 원시의 운율과 어조가 동일할 것
3. 원시에 사용된 부사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
4. 역설적 표현을 사용할 것

㉠<사랑이 오기까지는,
 나는 아직 나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.>
 ㉡<사랑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,
 나는 비로소 연인을 잃은 설움에 잠길 테요.>
 ㉢<겨울 어느 날, 그 밤 길던 날
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 천지에 사랑은 자취도 없어지고,
 뻗쳐오르던 내 열정 서운케 무너졌느니,>
 ㉣<사랑이 지고 말면 그뿐,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
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.>
 ㉤<사랑이 오기까지는,
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그리운 나의 연인을.>

- ① 가
- ② 나
- ③ 다
- ④ 라
- ⑤ 마

33.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시문학파의 시적 경향과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'모란'이라는 아름다움의 대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정서가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.
- ② '여윈, 하냥, 우웁네다' 등과 같이 곱고 섬세한 시어를 잘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.
- ③ '모란'으로 상징된 소망에 대한 추구와 소멸의 미학을 통해 순수 서정성을 추구하였다.
- ④ '생성 - 소멸 - 생성'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었다.
- ⑤ 부드러운 시어의 사용과 수미 상관의 기법을 통해 시의 음악성을 잘 살려 내고 있다.

34. <보기>는 이 시에 대한 설명이다. 빈 칸에 들어갈 시구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‘봄’과 ‘모란’의 결합이다. 모란은 봄의 막바지에 피어나기 때문에 봄의 절정을 장식한다.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모란이 지면 봄도 잃을 수밖에 없다. 이 시에서 시인이 포착하고 있는 절정의 순간은 결국 봄과 모란을 함께 상실하는 순간이라고 할 것이다. 소멸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서의 극치를 시인은 ‘()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.

-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
- ②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
- ③ 오월 어느 날, 그 하루 무덥던 날
- ④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
- ⑤ 찬란한 슬픔의 봄

35.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모란’은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다.
- ② ‘봄’은 모란이 피는 시기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.
- ③ ‘설움’은 모란이 떨어진 것을 보고 느끼는 슬픔을 의미한다.
- ④ ‘보람’은 모란이 진 후 시적 화자가 대신 찾아낸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의미한다.
- ⑤ ‘삼백예순 날’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서러운 정감의 깊이를 보여 준다.

정답 및 해설

1. <답> 아름다움, 일체감, 아름다움
2. <답> 오래, 숙명적
3. <답> 똑똑, 감각적
4. <답> 삼백예순 날, 서글픈 정감
5. <답> 보람, 봄, 보, 허탈
6. <답> 기다림, 상실감, 기다림
7. <답> 수미상관
8. <답> 모순형용
9. <답> 여성적
10. <답> 있을 테요, 잠길 테요, 우웁내다
11. <답> 모란
12. <답> 아직
13. <답> 순환적
14. <답> 삼백예순 날
15. <답> 찬란한 슬픔의 봄
16. <답> 설움
17. <답> 봄, 보람
18. <답> 모란, 봄
19. <답> 삼백예순 날
20. <답> '봄'은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픈 시간이지만, 또한 모란이 피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기도 하다. 즉,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.

21. <답> ④
이 시는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 순수한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, 관념을 배제하고 시의 음악성과 예술성을 추구한 순수 문학이다.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22. <답> ③
화자가 추구하는 '봄'은 모란이 피기(생성)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계절인 동시에 모란이 지는(소멸)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. 그러나 화자는 소망의 달성과 기쁨, 기쁨의 소멸과 좌절, 다시 간절한 소망의 과정이 삶 자체라는 깨달음을 보이며 기쁨과 슬픔을 모두 누리려 하고 있다. 따라서 화자가 천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동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23. <답> ①
이 시에서 '모란'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보람이며 소망의 대상이다.
⑤ '모란'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자체일 뿐 소망을 이루어 주는 존재는 아니다.

24. <답> ①
'아직'은 시적 화자의 봄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가 길고 오래며 숙명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부사어이다. 이외에 '비로소' 역시 봄을 여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25. <답> ④
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(모란)을 일 년 내내 기다리며 그 소망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인다. 이를 통해 인생에서 슬픔과 좌절이 뒤따를지라도 소망과 보람을 찾으려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
26. <답> ④
㉠은 모란이 졌을 때의 화자의 서러운 정감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동시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, 화자가 모란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.
㉡ 화자는 모란을 기다리는 시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도 보람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.

27. <답> ①
㉢은 모순된 표현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법이 사용된 표현이다. ①의 '외롭고 황홀한 심사' 역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감정(외로움, 황홀함)을 동시에 표현

하고 있다.

② 공감각적 심상, ③ 활유법, ④ 반어법, ⑤ 감정 이입이 사용된 표현이다.

28. <답> ④

㉠ ‘떨어져 누운 꽃잎’은 떨어진 모란, 소망의 소멸 상태로 볼 수 있다.

29. <답> ①

핵심 대상은 ‘모란’으로 화자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30. <답> ③

‘모란’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‘봄’과 유사한 상징적인 의미를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‘뺨쳐 오르던 내 보람’이라는 시구를 통해서 ‘보람’도 모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31. <답> ④

1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, 삼백예순 날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은 기다리는 나날들을 강조하는 것이다. 이것을 통해 화자는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.

32. <답> ⑤

㉡에는 원시와 다르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. 역설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‘고통스러운 만남의 기쁨’ 정도의 표현이 쓰여야 한다.

33. <답> ④

이 시는 ‘봄을 기다림 - 봄의 상실 - 봄을 기다림’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탄생과 소멸로 볼 수도 있다. 그러나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.

34. <답> ⑤

소망의 실현과 소망의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봄을 ‘찬란한 슬픔’이라고 한 표현은 이 작품의 소멸의 미학의 절정을 드러낸다.

35. <답> ④

‘보람’은 모란이 피었을 때 시적 화자가 느끼는 기쁨을 의미한다.